

광주복지재단 후보자 청문회 논란

신일섭(63)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문제, 보은인사 논란 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의회예결위실에서 신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학실 의원은 "신 후보자가 호남대 사회과 교수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전과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관련 논문도 없어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의원은 "후보자의 사회복지 현장 활동이 전무하다"며 "광주복지재단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지역 복지재단과 교류활동인데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끌고가고 소통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전문성이 논문으로는 확보되지 않는다. 10

사회복지과 교수임에도 관련 논문 없어

교통법규 위반 50건 · 광주시장 지지 경력

여 년간 한 분야에서 일하고 경험하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논문을 쓰지 않은 대신 사회복지 저서 4권을 출간했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과 과다한 교통법규 위반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후보자는 호남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2년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광주지역 모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0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200만원 이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후보자는 "복지법인 대표를 맡는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으나 결

과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며 "교통법규 위반은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기초질서 준수에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집 의원은 "신 후보자가 어린이집 대표를 하던 기간에 간호사 미배치, 조리원 미달배치, 통학차량 미신고 등으로 한 달간 영입정지를 받아야 하는 데 과징금 615만원으로 대체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수정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연관성을 따져볼았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의 이용섭

을 말하다와 '이용섭을 위한 변명' 등이 시당에게 우호적인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8년에는 이용섭 후보 지지 성향의 광주·전남지역 교수포럼인 '더 행복광주'의 상임대표를 맡아 지지 활동을 했으며, 선거자금 펀드 모금에도 동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딸과 아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도 드러났다.

인사특위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시장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부당 채용과 임대시설 불법 복인, 간부 감질 등이 지적돼 대표이사과 사무처장이 자진 사퇴했다.

서은홍 기자

美고교 총격 후유증으로 2명 극단적 선택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고교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학생이 지난 17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이 학교 출신의 다른 학생이 추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지난해 2월 총격 사건이 발생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한 학생이 지난 23일 오후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희생자는 총격 사건 당시 이 학교 학생이었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학생이 총격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 학교 출신 시드니 에일리가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죄책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플로리다 애틀랜타에 재학생이었던 에일리의 장례식은 지난 22일 치러졌다.

지난달 2월18일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고교 총격사건으로 14명의 학생과 직원 3명 등 17명이 숨졌으며 범행을 자백한 가해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말리 중부서 민병대가 민간인 134명 학살

지난 23일 말리 중부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의 사망자 수가 134명으로 증가했다고 유엔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24일 새로 공개된 말리 중부 오고소구 마을을 찍은 동영상은 마을 가옥들이 불타는 가운데 시신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곤족 민병대는 지난 1년 간 말리 중부에서 풀족 마을 수십곳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타비탈 풀리쿠 풀족 단체는 희생자들 가운데에는 임산부와 어린이, 노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많은 희생자들이 불탄 가옥 안에서 발견됐다. 말리를 방문한 프랑수아 델라트레 유엔 안보리 의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격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 55명에 이른다고 유엔은 밝혔다.

지난 2013년 프랑스군이 이끈 군사작전으로 말리 북부에서 쫓겨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이후 농촌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재결집을 통해 많은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도곤족과 풀족 간 긴장이 높은 중부 지역에서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곤족은 풀족이 극단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풀족은 도곤족이 말리군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해 12월 말리 중부에서 민병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크로아티아의 산악지대에서 난민 15명 구조

크로아티아의 눈 덮인 중부 산악지대에서 임신한 여성 한 명을 포함한 난민 15명이 발견돼 구조되었지만 이 여성은 중태라고 경찰 당국이 발표했다.

이들 불법 이민 그룹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눈에 덮인 폴리예비카 산을 넘어 입국했으며, 임신한 여성은 가까운 고스피치 시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로 입국하기 위해 국경지대를 접하고 있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는 수 천명의 난민들이 상주하며 대기하고 있다. 이들이 선택하는 통로는 이른바 '발칸 루트'의 일부이며, 최근 몇 달 동안에 부쩍 활발하게 불법 이민자들이 이용한 장소이다.

크로아티아 경찰은 올해 1월에도 같은 산에서 흑한의 날씨에 조난을 당한 15명의 난민들을 구조한 적이 있다.

이 달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크로아티아 경찰이 난민들을 향해 지나친 폭력을 행사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앞으로 난민들의 입국을 방해하고 입국 의욕을 꺾기 위해 정부 당국이 떠어난 고의적인 폭력작전"이라고 규탄했다.

크로아티아 내무부는 이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 경찰은 오직 국경 수비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내법과 유럽연합의 법률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거창 자작나무 수액 채취 25일 경남 거창군 양양면의 한 아산에 있는 자작나무에서 수액채취를 위해 물병들이 놓여 있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포스코 황포 규탄 성명서 발표

스카이크루브 손해배상 청구 대한 범시민적 저항운동 경고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최근 제5·6대 이통장연합회장 이취임식에서 최근 포스코 자회사인 (주)에코트랜스가 순천시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순천시 이·통장 일동으로 발표된 규탄 성명서에는 스카이크루브 사업은 포스코에서 영국 벤티스라는 법인을 만들고 영국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순천시민들에게 사업실

패의 책임을 떠넘기려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에서는 포스코의 사과와 손해배상청구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포스코의 행태를 규탄하며 범시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김진두회장은 "현재 포스코와 에코트랜스의 이러한 행태가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며 "기업의 사업실패 책임과 손해를 떠넘기려는 거대기업 포스코

에게 순천시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규탄 성명서를 포스코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순천시의 24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회장과 총무로 구성된 단체로 시민들의 현재 분위기를 가장 잘 읽고 대변하는 단체라 할 수 있어 이번 규탄성명서의 발표는 큰 의미를 가진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산구 금고 선정 청탁 · 명단 유출 등 8명 송치

경찰이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부정 청탁을 하거나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구의원·은행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광산구 1금고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광산구청 구급고 담당 팀장이었던 A(6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구급고 선정 이전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 대출 편의를 제공받은 광산구청 공무원 B(33)씨와 같은 은행에서 지정 기탁금 형식으로 수백만원을 기부받은 구의원 C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금고지정 평가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23일 1금고 운영기관으로 경쟁했던 농협과 국민은행 관계자 5명에게 심의위원 9명의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은행 측의 요구로 농협 직원을 만나 명단을 넘겨줬다. 국민은행은 문자로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급고 선정 심의위원이었던 B씨가 구급고 선정 청탁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봉우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급 검진

임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검진